

## 27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 보고

제102회기 총회회관 신축준비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선규  
서 기 김기철

### 1. 조 직

- 위 원 장 : 김선규
- 회 계 : 윤선율
- 위 원 : 김동관 박요한 동현명
- 서 기 : 김기철
- 총 무 : 윤두태

### 2. 회 의

#### 1) 전체회의

#####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2. 6(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소집자 김선규 목사의 사회로 임원을 조직하니 위원장 김선규 목사, 서기 김기철 목사, 회계 윤선율 장로, 총무 윤두태 목사로 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차기 회의에서 건축사, 토지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하다.
- ② 서기가 제102회 총회 결의내용(현의안 내용)을 설명하다.
- ③ 전도법인국 박상범 국장이 염곡동 총회회관 부지내역(22억 5천에 매입, 도로편입 6억 보상 받았음), 제주도 땅, 유지재단 보유 자금현황(20억 정도)에 대하여 설명하다. 현 총회회관에 대한 건축진단서를 차기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키로 하다.
- ④ 청렴서약서에 서명키로 결의하고 전원서명하다
- ⑤ 총회정책연구위원회, 기독교신문과 협조하여 총회회관 건축에 대한 정책공청회, 여론조사 시행토록 추진키로 하다.
- ⑥ 자료요청 등 회의자료 준비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키로 하다.
- ⑦ 차기 회의는 2018년 3월 29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3. 29(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원 출석을 보고하니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②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안건토의



- 가. 총회회관 건축진단서에 대한 검토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진행기로 하다. (자문위원과의 연락 등은 위원 박요한 장로에게 일임기로)
- 나.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최경옥 총무로부터 현 총회회관 건축시 전국여전도연합회가 당시 전제산을 헌납했고, 총회회관 신축시 2개층을 사무실로 주기로 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어 2개층에 대한 분리등기와 사무실 추가배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청취하다.
- 다. 총회회관 현장실사(사무실 임대 현황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담당 실무자(국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다.
- 라. 총회회관(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소재)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는 건축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은 후에 시행기로 하다(자문위원 연락 등은 위원 박요한 장로에게 일임).
- 마. 본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건축사 이시홍 장로, 변호사 심요섭 장로와 최득신 장로, 세무사 정윤구 장로, 토지전문가 이동진 장로 등을 위촉키로 하고, 총회 임원회에 위촉장 수여와 본 위원회 예산증액을 요청키로 가결하다. 자문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현장 실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위원회 활동을 자문한다.
- 바. 총회회관 신축과 관련한 증경총회장단 임원과의 간담회는 5월 목사 장로기도회 기간에 갖기로 하고, 총회 총무와 본부 실국장, 기독신문 국장 등과의 간담회는 추후 일정을 맞춰 갖기로 하다.
- ④ 현 총회회관 건축 당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건축헌금 내역에 관한 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총회본부와 전국여전도연합회 측에 요청키로 하다. 차기 회의에 필요한 자료요청의 건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키로 하다(1차 회의 가결).
- ⑤ 차기 회의는 4월 16일(월)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8. 4. 16(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 김기철 목사가 6명 참석을 보고하므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② 서기 김기철 목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안건심의
  - 가. 총회본부와 전국여전도연합회 측에 요청한 현 총회회관 건축 당시 전국여전도연합회 건축 헌금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계속 찾아 제출하겠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받다.
  - 나. 위원 박요한 장로가 염곡동 총회회관 부지에 대한 전문가(건축사 이시홍 장로)의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 방공고도제한구역, 과밀억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중규제 지역이어서 현실적으로 총회회관 건축이 어렵다고 보고하다 (규제가 너무 많아 매각도 쉽지 않을 것 같다).
  - 다. 현 총회회관 지하 2층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일각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공사비가 많이 들고 암반 등이 있어 난공사가 예상되므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진단결과를 실무자가 보고하다.
- ④ 총회 증경총회장단 임원과의 간담회는 5월 9일 점심식사 후에 충현교회에서 갖기로 하다.
- ⑤ 자료제출, 전문가 및 참고인 출석,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와 공청회 추진 등 업무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계속 추진키로 하다.
- ⑥ 차기 전체회의는 5월 23일(수)09:30분에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8. 5 23(수)09: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김기철 목사가 6명 참석을 보고하므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② 서기 김기철 목사가 전회의록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안건심의

가. 총회유지재단 박상범 국장이 총회회관 건축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하다.

우리 총회회관은 560평 규모로 옆에 있는 건물(580평)이 최근 수백억 원에 매각되어 업무용 건물을 신축기로 한 것을 감안할 때 비슷한 가치가 있거나 혹은 그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본다. 한국전력부지에 대규모 현대자동차 사옥이 신축 추진 중이고, 확정되진 않았지만 잠실종합운동장 300배 규모의 지하도시 건설이나 삼성역에서 수서역까지 경전철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주차장 등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감사한 것은 경기침체로 주변 사무실의 공실률이 높은 편이지만 우리 총회회관은 현재 공실이 없다. 신축할 경우 준주거지역이라 최대 7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현 면적의 70% 정도 건축이 가능하다.

나. 현 위치에 회관을 신축할 때의 공사비, 현 회관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 건물 안전을 위한 최소한 필요한 조치 등으로 나누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하다.

다. 수서역, 학여울역, 삼성역 등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을 총회임원회에 건의키로 하다.

- ④ 총회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전인식 목사)와 협력하여 총회정책공청회에서 총회회관 현황과 신축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고, 총대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다.
- ⑤ 자료제출, 전문가 및 참고인 출석,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등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계속 추진키로 하다.
- ⑥ 차기 전체회의는 6월 11일(월) 오후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8. 6. 11(월)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정책공청회참석 후에 회계 윤선율 장로의 기도로 제5차 회의를 시작하다.

- ② 서기 김기철 목사가 지난 회의 이후 진행상황을 보고하다.

가. 서기가 특별위원 정년과 관련한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하다.

나. 총회본부에서 총회회관 보수유지 필요성과 예상비용 등 검토를 위해 리모델링 전문업체에 컨설팅 의뢰하였음을 보고하다.

다. 실무자가 총회회관 신축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적지를 찾지 못했고, 계속 추진키로 하다.

라. 총회보고서 작성 전까지 컨설팅 결과 분석, 총대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계속 진행키로 하다.

- ③ 회록 정리, 총회 정책공청회(대구) 발제와 현장 의견수렴, 총회보고서 초안 작성, 잔무를 서기에게 맡겨 진행키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18. 8. 14(화) 12: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수서역, 염곡동 총회회관 부지, 광명역 역세권 지역을 탐방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18. 8. 23(목) 16:00

☞ 장 소 : 주다산교회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SRT 동탄역세권 지역을 탐방하다.

## 총회회관 건축과 총회비전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 서기 김기철 목사

우리 총회회관은 1985년 12월 31일에 준공된 건물(건물:2,354평, 대지:556평)로 건축 초기만 해도 언덕 위에 우뚝 선 깨끗한 건물이었지만 이젠 대형빌딩 숲에 둘러 싸여 눈에 띄게 낡은 건물이 되었다. 무엇보다 주차공간이 좁아 주차전쟁은 일상화 된지 오래다. 지방에서 상경한 민원인들은 하루에 몇 만원의 주차비를 지불하기도 하는데, 회의가 중복되는 날에는 혼한 일이다. 명색이 한국 최대교단의 총회회관인데 예배당조차 없다. 백 명이상 참석하는 큰 행사는 2층의 여전도회관을 빌려 쓰고 약간의 사용료를 내는 궁색한 형편이다.



총회회관

염곡동 총회회관 부지(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산55-2, 임야 4386평)에 번듯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2010년 5월 GNI의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도 본 위원회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본 결과 주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방공고도제한구역, 과밀억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다중규제지역이라 “국가 기관의 공용건축물이 아닌 경우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민간

사업 및 민간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2010년 5월 GNI)으로 총회회관 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러다보니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관할 서초구청과 군 부대 등 관계기관의 협조로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환경단체의 반대를 넘어 건축을 실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통해 공공용지와 환지를 추진하는 것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본다.

사실 그 동안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지역(DMC), KTX광명역 역세권으로의 이전 등 몇 번의 이전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지도부와 총회 구성원 간의 소통 부족 등으로 흐지부지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총회회관, 신축 등 대책 있어야

현재 우리 총회회관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빈발하는 지진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셈이다. 11년 전인 2007년 10-11월 광림구조이엔지(주)에 의뢰하여 받은 건축 정밀진단에서 건물 노후에 대한 내력보강 필요성과 지하주차장과 옥외 주차장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7월 현재 본부에서 (주)동원에 리모델링 타당성을 의뢰한 상태인데, 11년 전보다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실 내 내장된 전기 배선이 낡아 누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노출 공사를 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묵인해 오던 주차장에 대해 최근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도 리모델링 등 시설 보완을 서둘러야 할 시급한 이유이다. 이런 일련의 필요성 때문에 작년 제102회 총회는 총회회관 신축준비위원회(위원장:직전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두어 총회회관 건축에 대한 제반 검토와 준비를 맡긴 바 있다.

## 재건축, 실익 높지 않아 고민

첫 번째 방안은 현재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이다.

총회본부와 기독교신문사 등 입주기관들은 불편하겠지만 임대 건물로 이사한 다음 신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총회 회관은 560평 규모로 옆에 있는 580평이 최근 수백 억 원에 매각되어 대기업에서 업무용 건물을 신축키로 한 것을 감안할 때 비슷한 가치가 있거나 혹은 그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본다(평당 5천 1백만 원). 옛 한국전력 부지에 대규모 현대자동차 그룹 사옥이 신축 추진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 300배 규모의 지하도시 건설을 추진하거나 삼성역에서 수서역까지 경전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침체로 주변 사무실의 공실률이 높아가고 있지만 우리 총회회관은 아직 공실이 없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참고로 일반 업체에 대한 임대면적은 847평으로, 전체 면적 대비 36% 정도 된다.

그러나 우리 총회회관은 도시계획상 용적률을 높일 수 없고, 신축할 경우 준주거지역이라 최대 7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낮은 건물을 지어야 한다. 현재 면적의 70% 정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깊이 판다고 해도 현재 만큼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지하 주차장 확장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암반 제거 등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 것도 넘어야 할 고비 중의 하나로, 재건축을 강행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너무 낮아 추진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 수도권 지역 신축, 적극 검토해야

두 번째 방안은 건물을 매각하여 제3의 위치로 이사하는 것이다.

다행히 현재 건물은 강남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가격과 임대료가 비싸고, 인접한 외제차 업체에서 인수의향을 타진해온 적도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작년 총회에서 총회회관 신축준비위원회를 두기로 하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 중에는 대전이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총회회관을 신축해서 이전하자는 과감한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 교단 교회들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지방에 교단신학교 등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고신파 교회나 침례교단의 경우도 타산지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두루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옮기거나, 수서역과 광명역 역세권, 경부고속도로 인접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을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접근성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일시대까지 내다보고 경부고속도로 근접 거리에 총회본부 부지나 교단 신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동진 장로(현 전남 진도군수, LH본부장 출신, 토지개발 전문) 같은 전문가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로 2017년 8월 24일(목)-27일(토) 3일간 총회정책연구위원회가 기독교신문과 공동으로 ㈜지엔컴리서치에 의뢰해 총대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회회관은 ‘시설이 낡고 도시계획상 대규모 증축을 못해 이전해서 신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53.9%, ‘부동산 가치가 높아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33.9%로 이전 신축을 바라는 총대들이 20% 더 많았다. **총회회관이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데 많은 총대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1640명 가운데 휴대 전화번호가 없거나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을 제외한 1,549명의 총대 가운데 665명이 응답 했는데, 40% 이상의 총대가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총대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총회타운, 장기계획 검토필요

**세 번째 방안은 아예 수도권에 대규모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총회산하 전 기관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것이다.**

총회본부, 총신대학교와 총회세계선교회(GMS), 기독교신문, 남녀 전도회 전국연합회 등이 입주하도록 그랜드 캠퍼스를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입주하는 것이다. 총대수의 증가에 따라 총회 개최가 가능한 교회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예배당, 총회역사관, 결혼식과 예술 공연이 가능한 중형 규모의 다목적 예배실, 방송실, 휴게실, 회의실, 지방에서 상경하는 총대들과 안식년과 일시 귀국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 총회 안에는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등 총회회관 입지선정과 건축을 추진하고,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충분하다.

경부고속도로와 KTX, SRT 연결이 가능한 곳에 수십만 평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하여 총회본부를 비롯한 우리 총회 산하기관들이 차례로 입주하고 나중에는 직원 아파트, 은퇴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실버타운을 함께 건축한다면 입주 기관간의 협력,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우리 총회 장기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좀 더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초교파 선교단체, 연합기관, 교계언론 기관, 군소교단 총회 등이 입주하면 교단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총회회관, 총회 위상 반영해야

송파구청에서 잠실역 쪽으로 건다 전에 보지 못했던 루터회관을 볼 기회가 있었다. 유리 건물로 한 눈에 봐도 아름답고 깨끗한 신축건물이었다. 교세만 생각하면 군소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등 재정능력이 있는 형제교단의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떻게 그 큰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자못 궁금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을 본부로 쓰고 있는 통합측은 200억 원을 들여 새 회관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통합측 여전도회관의 위용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진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도 현 총회회관은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 총회비전 담을 수 있는 총회회관



루터회관

미국의 개혁 장로교회가 미시간 주 칼빈신학교 캠퍼스 안에 총회본부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하는 첫 번째 방안은 고비용 저효율로 사실상 폐기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두 번째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100년 후에도 총회본부와 총신대학교가 현재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생존을 넘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가에 대한 답을 우리 총회 지도자들은 지금부터 토론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 중의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



통합여전도회관



대신총회회관



감리교회관



## 총회회관 신축 준비위원회 최종 보고

### 1. 제102회 총회 수입사항

- 남수원노회장 김창순 씨가 현의한 총회회관 신축의 건과
- 전서노회장 김기철 씨가 현의한 총회회관 신축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과
- 삼산노회장 장기호 씨가 현의한 총회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개발위원회 조직의 건은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 2. 102회기 추진사업개요

- ① 총회회관 신축관련 제반 자료조사 및 현황파악
- ② 염곡동 부지 및 신축부지 마련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서초구청, 강남구청등)
- ③ 총회회관 리모델링 관련 검토
- ④ 정책연구공청회시 총회회관 신축관련 발제 및 참석자 의견수렴

### 3. 총회회관 신축관련 위원회 보고 및 최종결론

#### 1) 현 총회회관에 대한 진단

- (1) 1985년 12월 31일 준공된 현 회관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전기 배선이 낡아 노출 공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받은 건축 진단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 (2) 관행상 용인해 온 주차장에 대해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 2) 리모델링해서 당분간 사용한다.

- (1) 총회회관 신축을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 기간 현 총회회관을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하도록 총회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총회장)에 맡겨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4. 총회회관 신축방안 제안

#### 1) 제1안: 현 위치에 재건축

- (1) 준 주거지역이라 7층까지 70%만 건축이 가능하다.
- (2) 지하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암반 제거 등이 쉽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다고 해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
- (3) 고비용 저효율로 재건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2) 제2안: 제3의 위치로 신축 이전

- (1) 수서역, 광명역, 경부고속도로 인접지역을 최우선 후보지로 검토한다.
- (2) 건축비는 현회관을 매각하여 추진한다면 추가비용이 거의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총회개최가 가능한 대형예배실, 예술공연과 결혼식이 가능한 다목적 예배실, 중소형 회의실, 휴게실,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신축한다.



- (4) 염곡동 총회회관 부지에 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환지를 추진한다.

### 3) 제3안: 대규모 총회회관 부지 확보

- (1) 수도권과 경부고속도로, KTX와 SRT 역사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확보한다.
- (2) 총회회관은 물론 기독교신문, 총회세계선교회(GMS), 남녀전도회전국연합회 등 총회 산하기관 등을 차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총회회관 건축위원회 출범 및 예산배정 청원

- 아 래 -

### 1) 총회회관 건축위원회 출범

- (1) 총회장을 위원장(1인), 부총회장을 부위원장(2인), 총회임원(2인)과 유지재단이사회 이사(1인), 총회총무(1인), 전국여전도회연합회(1인), 건축분야 전문가(1인), 제102회 총회회관 신축준비위원(6인) 등 15인으로 총회회관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증경총회장과 관련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건축위원회 산하에 부지구입, 건축허가, 건축설계, 회관매각,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 (3) 위원회는 부지구입 등 단계에 따라 매년 건축 진행상황을 총회정책실행위원회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 (4)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회임원회가 추천하고, 총회 파회 전 본회에 보고하여 인준 받는다.

### 2) 건축위원 청렴 서약서 제출

- (1) 총회회관 건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잡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원들에게 계좌추적 동의,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케 한다.
- (2) 위원 중에서 동 서약 위반시는 위원직에서 제명하고, 소속 치리회에 시벌하도록 요구하며,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

### 3) 예산 증액 및 청원

- (1) 건축위원의 증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총회회관 신축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 선 규  
 서 기 김 기 철